

다카다 겐조(Kenzo Takada)의 작품에 관한 연구

전북 산업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정 연 자

目 次

I. 서 론
II. 에콜로지풍(Ecology look)과 민속풍(Fthnic look)의 특징
III. 다카다 겐조의 작품세계
IV. 다카다 겐조의 작품에 나타난 에콜로지풍(Ecology look)과 민속풍(Ethnic look)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20세기 이후 우리앞에 전개된 의복의 현상은 미술, 음악 문예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¹⁾ 많은 복식학자들은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³⁾⁴⁾ 또한 복식은 시대의 미적 기준으로 그 시대의 사상, 정서 내지는 미적 가치를 표출⁵⁾ 하고 있는데 이의 기능을 Roach⁶⁾ (1965)는 의복의 표현적 수단이라 하였다. 다시말해 특수한 현상을 바탕으로 창조한 특수한 의복의 형태(선, 형태, 색채, 재질)는 그 시대의 집합적 사고와 미적 가치에 대한 내적 형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의복의 심미적 표현기능을 전달받는다⁷⁾ 는 것이다.

21세기를 앞둔 오늘날의 패션은 사라져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활을 창조하는 가장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미래지향의 현 사회에서 보다 확실한 진실로서의 그 의미를 갖고 있다⁸⁾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이 의복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생활속

의 자아표현, 자기완성과 창조의 미적 방편으로 선택하는 것은 패션이 미적 질서와 형식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정신세계를 표출할 수 있는 충분한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유럽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주제가 문학과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⁹⁾ 이는 자연이 인간 생(生)의 본래 터전인 동시에 인간이 속한 모든환경¹⁰⁾으로서 오래 전부터 인간의 미의식과 예술활동의 모체가 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의 이슈가 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연보호운동 등의 확산은 자연을 소재로 하는 직물, 스타일, 분위기의 에콜로지(Ecology : 생태학, 환경학) 경향을 유행시키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인류의 원초적 삶이 짙게 표현되는 민속풍(Ethnic look)의 유행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¹⁾ 이는 현대 문명의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을 벗어나 자연과 과거로 돌아가고픈 현대인들의 바램이 패션에 표현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에는 지구를 생각하는 패션,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패션테마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리라 믿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에콜로지풍(Ecology look)과 민속풍(Ethnic look)이 강하게 두각되고 있는 <겐조>의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에콜로지 풍(Ecology look)과 민속풍(Ethnic look)의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겐조>의 작품에 나타난 형식미와 내용미를 고찰하여 에콜로지풍과 민속풍의 특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Ecology look과 Ethnic look의 특성을 살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집, Vogue, gap, Collection, 장원(裝苑)지에 나타난 겐조의 작품을 Wöfflin¹²⁾이 제시한 양식의 이중근원에 따라 『형식미』와 『내용미』를 살펴보았다. 형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복식의 일반적 형태에 대하여 Müttzel, Flügel, Horn과 Gurel, Laver 등은 기능성에 의해 분류하였고, 小川安朗, Boncher, Delong, Roacher와 Eicher, Roacher와 Musa 등은 복식과 인체와의 관계에 의해 분류하였는데¹³⁾ 본 연구에서는 테일러드형, 드레이프드형, 혼합형으로 나눈 Horn과 Gurel의 복식형태 분류방법을 적용하였다.

II. Ecology look과 Ethnic look의 특징

1. Ecology look의 특징

환경학, 생태학이라는 뜻을 지닌 에콜로지(Ecology)패션은 인공적 행위에 의해 오염된 현재의 환경을 거부하고 자연현상과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원리로서의 질서를 꾀하고¹⁴⁾ 환경파괴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패션테마로 등장한 에콜로지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부각시켰고 이는 곧 문명에 물들지 않은 원시세계의 동경을 표현한 것이며, 원시적 특성과 큰 연관성이 있다.¹⁵⁾ 공시적으로는 물질문명의 지나친 발달로 인해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자연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곳을 원시적 이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을 중시하는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생태학적(Ecology)관심이 커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¹⁶⁾ 복식에서 Ecology look으로 표현되고 있다. Ecology look은 자연속에서 살아간다는 소박한 소망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의복 디자인이며, 지나친 조형미를 배격하고 수수하고 활동적인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에콜로지 패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의복을 통하여 자연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로는 Paul Poiret, Laura Ashely, Kenzo Takada 등을 들 수 있다.¹⁷⁾

현대복식에 있어서 에콜로지 테마의 표현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자연 모티프의 문양, 흐르는 듯한 자연스런 실루엣 등으로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옷에 담고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적 질감이나 소재활용을 통해 부드럽고 향수에 찬 전원풍을 시도함으로써 현대 문명의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을 벗어나 그안에 담긴 정서적인 자연주의를 발견하는 것이다.¹⁸⁾ 자연주의라는 것은 John Ruskin의 교리이며 자연대상을 양식화 하거나 어떤 관념적 표현을 행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를 충실히 재현하려는 예술제작 태도를 말하며 이러한 자연주의 이념은 외적 형식에서는 '자연을 진실하게 묘사'하는 실증적 사실주의를 보여주며 외적인 내용으로는 '자연으로 돌아가서'의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순수성을 보이고 있다.¹⁹⁾

Ecology의 세계는 자연물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에 대한 추구, 심미적 관점에서의 관찰, 모더니즘과 결합등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된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과의 융합 그리고 인간과 의상과의 일체감을 표현해 주는 의미로서 패션테마로 떠오른 Ecology는 패션계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4. Ethnic look의 특징

민속풍(Ethnic look)이라 하면 민속의상 그 자체와 염색, 직물, 자수 등에서 힌트를 얻어 소박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을 말한다.²⁰⁾ 1980년 후반기 이후부터 현대패션에 다양한 종류로 등장한 민속풍(Ethnic look)의 유행경향은 인류의 근원을 찾는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각 문화권마다 다른 민속의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패션테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민속적 경향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지구는 하나라는 일체감을 표현해 주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속풍은 후기산업시대, 정보시대에 적합한 패션의 주체로서 서양복식의 인위적이며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동양이나 아프리카의 때묻지 않은 원시성의 추구에 대한 향수라고 할 수 있다.²¹⁾

지역 고유의 풍속, 풍습, 모양, 소재, 기술 등이 반영되어 있는 의복을 민속복식²²⁾ 이라고 하며 Folklore도 민속의상이나 민속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Ethnic은 좀 더 토속적이고 비교적 원형이 간직된 상태를 뜻하며, 종교적 의미가 가미된 비기독교적인 민속을 지칭한다. Folklore와 Ethnic은 똑같이 민속풍을 표방하지만 그중에서도 Ethnic은 기독교권 이외의 지역에 한정된다. 예를들면 중근동의 종교적인 의상, 잉카의 기하학적 문양, 인도네시아의 바틱, 인도의 사리 등이 Ethnic의 대표적인 디자인 소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속복식은 복식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또 하나의 풍요한 자원으로 세계의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의 민속복식이 세계 유행에 영향을 미쳤던 예는 과거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에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프리카의 복식이 유행했던 예나 월남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중공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동남아에서 나온 볼레로(boleros)가 유행했던 예같이 의복의 형태 중에는 각 지역의 민속복식에서 출발한 것이 많다.²³⁾

민속풍(Ethnic look)의 등장은 1906년 뽀아레(Paul Poiret)가 기모노 소매의 코트와 터번, 하렘팬츠를 이용한 오리엔탈 무드를 발표²⁴⁾한 것과 1967년 입. 생. 로랑(Yv. St. Laurent)²⁵⁾이 아

프리카 드레스를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민속적 복식이 오뜨 꾸뛰르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 겐조(Kenzo Takada)²⁶⁾가 낭만적인 분위기의 일본, 중국, 러시아의 민속적 요소를 과감하게 발표하면서 민속풍(Ethnic look)은 현대패션에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 후반부터 민속풍의 패션테마는 절정을 맞게 되었다.

Ⅲ. 다카다 겐조(Kenzo Takada)의 작품세계

〈겐조〉는 1939년 일본의 효거지방에서 태어났으며 1965년 도블하여 지금까지 프랑스 패션계의 정상상을 자리잡고 있는 디자이너이다. 1970년 4월 콜렉션을 발표하면서 파리에서의 〈겐조〉활약은 시작되었고 은통 꽃을 수놓은 듯한 그의 콜렉션은 파리 패션계에 충격과 관심을 집중시켰다. 디자이너란 시대감각과 대중들이 달려가는 방향을 빨리 찾아내어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날카로운 시대감각과 행동하는 힘이야말로 디자이너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패션은 그 시대의 살아 움직이는 이상과 일치하였을 때 그 최대 공약수를 얻을 수 있다²⁷⁾고 본다. 겐조는 이러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의복을 구현하기 위해 패션디자이너로서 프랑스 패션계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한편, 사회의 동정과 거리의 패션을 늘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유행의 물결을 탐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착실하고 조용하게 그의 활동범위를 넓혀갔다.

〈겐조〉는 입어서 편안하고 즐거운 의복을 제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1971-1972년 추동콜렉션에서는 직선재단을 이용하여 부자연스런 다트와 꼭 죄는 지퍼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의 선을 무시하는 디자인으로 착용자에게 자유로움을 주었고 의복의 물리적인 속박에서 해방되게 하였다.²⁸⁾ 〈겐조〉는 늘 착용자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오뜨 꾸뛰르의 신체에 꼭맞는 엘레강스한 분위기에 실증을 느끼고 프레타 포르테의 입어서 편안하고

즐거움 실용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1974-1975년 추동물렉션에서 기모노 소매의 변형과 함께 발표한 그의 빅룩(Big look)은 파리물렉션에 생기를 불어 넣었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변화시키게 되었다.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융합한 그의 스타일은 독창적이면서도 도전적이었고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대담한 색과 뜻밖의 소재 이 두가지를 융화시키는 정교함이 있었으며 판화처럼 아름다웠다. '색채의 마술사' 라고 칭송받는 그의 색채감각은 그가 늘 사용하는 꽃무늬 디자인에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는 선명한 색의 강한 색채대비 현상을 많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겐조〉가 뜻밖의 물렉션을 발표하게 되는것은 그가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편물기술 덕분이었으며 그가 만든 자카드직은 『니트를 초월한 니트』의 평판을 받았고 혁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로 천연섬유를 많이 애용하는 〈겐조〉의 작품에는 자연의 질감과 함께 자연회귀현상을 물씬 풍겨 주었고 이러한 봄은 에콜로지(Ecology)봄으로까지 발전되어 가속도가 붙은 도시화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편안함과 여유를 표현하기 위해 부드러운 소재를 추구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²⁹⁾ '나는 꽃을 정말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겐조〉의 물렉션에는 언제나 꽃무늬를 발표하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각 지역의 민속의상을 활용한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을 뿐만아니라 복식용어사전에 기모노 슬리브를 수록하게 한 장본인이다. 패션 메이커(Fashion Maker)임을 자처해온 파리에 일본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일본풍을 하나의 장르로 정착시킨 공로자라는 점에서 〈겐조〉가 파리 패션계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990년 후반부터 〈겐조〉의 이러한 혁명은 조용히 동양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동양과 서양의 미의식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V. 다카다 겐조(Kenzo Takada)의 작품에 나타난 에콜로지풍(Ecology Look)과 민속풍(Ethnic look)

1. 에콜로지풍(Ecology look)

지적문명에 따르는 과도한 기술성과 기계적 성격에서 탈출하고 생명력과 원시성이라는 존재의 근원으로 되돌아 가려는 욕구는 세기말적 서구사상에 깊이 뿌리박힌 지식인의 정신상태로 이는 자연히 낙원사상으로 흘러 유토피아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생태학적인 강한 관심을 표현하게 했고 회화사에서는 색채와 형태를 단순화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화가로는 Rousseau를 들 수 있으며,³⁰⁾ 1970년 〈겐조〉는 자신의 부티크 'Jungle Jap'을 오픈하면서 기존의 부티크 개념을 없애고 내부벽면 전체를 Rousseau의 그림과 같은 정글을 그려 장식하였으며 〈그림 1〉. 1971년에는 'Jungle Jap'을 주제로 물렉션을 가졌고 이 물렉션에서 〈겐조〉는 디테일에 있어 Rousseau의 그림을 사용하였다. 〈그림 2〉는 그 당시 발표작의 하나로 Rousseau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연꽃과 나비의 문양이 드레스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 'Jungle Jap' 내부 장식을 하고 있는 Kenzo G. Sainderiehin, 『KENZO』, p. 31.



〈그림 2〉 연꽃과 나비무늬가 가득 들어간 드레스
G. Saïnderiehin, 「KENZO」. p. 15.

지의 표지사진으로 중국 농민풍의 의식을 입고 있는 여인과 모택동이 같이 서 있는 것같이 표현한 합성사진이며 〈그림 4〉는 농민풍의 소박한 의복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전원예에 대한 동경과 애정을 느끼게 해주며 자연으로 돌아가 고픈 현대인들의 인간 본연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



〈그림 3〉 농민풍(peasant look)
G. Saïnderiehin, 「KENZO」. p. 47.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생태학적 경향은 자연, 동물, 식물, 광물 등의 형태를 도입하고 있으며³¹⁾ 의복에서 이러한 경향은 인상주의의 영향하에 외적 조형요소로 꽃을 직물의 모티프로 사용하였다. 이는 자연현상에 대한 예술가의 주관적 표현이라고 할 수³²⁾ 있는데, 〈진조〉의 콜렉션에 항상 꽃무늬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그의 정신세계가 표출되고 있는 한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꽃은 자연의 이미지에 대한 조형적 표현에 있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꽃 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적 모티프를 의복에 표현하고 있는 〈겐조〉의 작품에는 자연의 예술화가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겐조〉는 향수에 찬 전원풍을 시도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정서적인 자연주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는 에콜로지(Ecology)의 표현방법 중의 하나로 이러한 전원적 주제의 재현은 도시생활에서 갖게 되는 시골과 자연에 대한 동경심으로, 의복에서 피전트 룩(Peasant look)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3〉은 1975년 Elle



〈그림 4〉 농민풍(peasant look)
「裝苑」, 1981. 3. p. 34.

고 있다.

소재 활용에 있어 천연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전원적인 분위기를 찾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³³⁾ 〈진조〉는 현대의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을 벗어나고자 천연직물을 주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5〉에서는 편물을 이용한 에콜로지풍의 작품으로 자연과의 융화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의복이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다. 에콜로지풍의 표현방법에 있어 자연물의 장식은 그 느낌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6〉은 아프리카적 이미지로 요의 형식의 스커트와 밀짚모자, 깃털장식 목걸이는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순수한 자연환경으로 돌아가고픈 바람을 담고 있으며 〈그림 7〉의 자갈을 이용한 목걸이와 팔찌 그리고 모래와 자갈을 연상케 하는 추상적인 그림을 의복에 세밀화 시켜 농음으로 인해 패션 전반에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내고 있다.



〈그림 5〉 에콜로지풍(Ecology look)
G. Sainderiehin, 「KENZO」. p. 13.



〈그림 6〉 아프리카적 이미지의 요의와 밀짚모자,
깃털목걸이를 이용한 작품
Kenzo, COLLECTION, 1992 s/s, p.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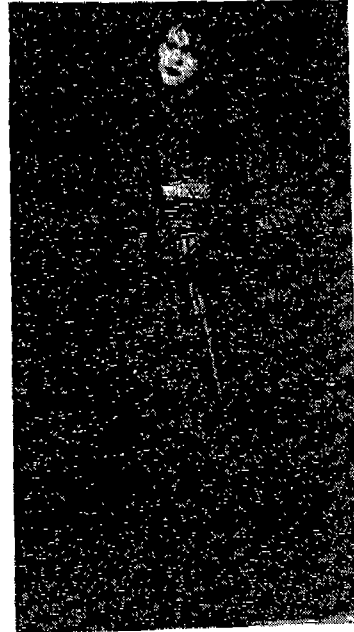
〈그림 7〉 자갈을 이용한 목걸이와 팔찌
Kenzo, COLLECTION, 1991 s/s, p. 141.

2. 민속풍(Ethnic look)

문화는 다른 문화로부터 기술, 정치, 경제 발전의 전파로 계속 수정되며 이 변화들은 복식에 뚜렷이 반영되는데 민속풍의 유행경향은 이러한 문화전파의 한 예로 볼 수 있으며 한 문화권내에서 하위문화(Suborddinte culture)에 전파되어 모문화(Mother culture) 복식을 변화시킨 예는 테디 보이, 히피, 펑크에서도 볼 수 있다.³⁴⁾ 또한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원화, 질충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는 민속풍(Ethnic look)은 제3국의 복식 양식을 현대풍에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질충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민속풍은 자연으로 돌아가 고풍 인간의 욕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부터 <겐조>는 민속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모습을 발표하였으며 세계 각 지역의 민속의상은 아이디어의 보고(寶庫)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민속풍을 선보였다. 주로 일본, 인도, 중국의 동양풍과 러시아 불가리아, 스페인의 유럽풍, 페루, 멕시코의 남미풍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민속풍도 선보이고 있는 <겐조>는 일본적 요소에 서구의 미의식을 접목시켜 동서양의 혼합모드를 발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풍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비구조적 형태의 기모노풍이 대부분이었고 기모노의 허리에 매는 띠(오비:帶)를 이용하였으며 색채는 주로 회색계통의 작품이 많았다. 일본에서는 3개의 벗꽃가지를 소재로 멋있는 꽃다발을 만드는 전통예술이 있다.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난 <겐조>는 3미터의 복면지와 작은 장식끈을 재료로 지금까지 파리에서 볼 수 없었던 꽃들을 드레스에 훌륭하게 소화시켜 보여 주었으며 또한 1970년 그는 동양풍의 비구조적라인으로 호응을 얻었는데³⁵⁾ 이어 1973년에는 전통적인 일본 복식, 무형의 의복을 선보이기도 하였다.³⁶⁾ <그림 8>은 기모노풍의 킬팅코트이며 안에 입은 니트 드레스에는 오비를 응용한 허리띠를 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킬팅코트는 일본 민속풍의 색상인 붉은색의 안감과 회



<그림 8> 일본풍(기모노를 이용한 코트와 오비(帶)이용)
G. Saenderiehin, 「KENZO」. p. 107.



<그림 9> 중국풍과 일본풍의 혼합모드(맨더린 칼라의 상의, 오비(帶)이용)
G. Saenderiehin, 「KENZO」. p. 51.

색의 절감으로 배색하였고 민속적인 분위기와 함께 실루엣에 있어 매우 편안한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다.

중국풍 표현에 있어서도 중국의 기본형식에 일본풍의 오비를 매어 혼합모드의 또다른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그림 9>는 비구조적 형태의 중국풍으로, 맨더린(Mandolin)상의와 바지 그리고 오버스커트를 입고 그 위에 허리띠를 매고 있다. 색채에 있어서는 화려한 색채의 대비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재는 면과 견을 이용하였다.

인도의 민속의상은 종교적인 복잡성과 다양한 인종과 언어, 지역적인 이질성의 환경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드레이퍼리 형태가 많으며 신분의 귀천을 떠나 장식의 풍부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³⁷⁾ <겐조>의 작품에 나타난 인도풍의 표현은 흰색과 빨간색의 색채대비와 함께 비교적 단

순한 형태로 처리되었다. <그림 10>

러시아풍으로는 코사크 모자를 이용하였고 불가리아의 바브쉬카풍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부유럽의 민속풍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파리의 분위기가 가득 들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동부유럽은 역사적으로 민족간의 교류가 빈번했고 민속의상에 있어서 유럽의 도시화와 동양의 이국적인 것에 끌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³⁸⁾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의 개혁정책으로 서구시장과의 개방에서 오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패션에 있어서도 민감한 변화를 타나내고 있는데 이의 한 경향으로 1980년대 후반에 러시아풍이 현대패션에 많이 표현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겐조>의 작품에 나타난 러시아풍이 현대패션에 많이 표현되기 시작했다. <겐조>은 코사크풍과 밀리터리 룩이었으며 <그림 11>은



<그림 10> 인도풍
G. Sainderiehin, 「KENZO」, p. 70.



<그림 11> 러시아풍 (코사크 모자)과 멕시코풍 (판초)의 혼합모드.
G. Sainderiehin, 「KENZO」, p. 97.



〈그림 12〉 아즈텍 문명시대를 현대화한 멕시코풍의 자켓과 관초.
G. Saïnderiehin, 「KENZO」, p. 63.

러시아의 코사크 모자와 멕시코풍의 관초를 혼합한 모디이며 면섬유를 이용하였다. 〈그림 12〉는 아즈텍 시대를 문명화한 멕시코풍의 자켓과 관초로 매우 신선한 느낌이고 대담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으며 색채에 있어서도 빨강, 파랑, 노랑의 원색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3〉은 아프리카풍을 화려한 색채를 이용하여 현대화시킨 작품으로 구슬 목걸이장식과 머리 장식, 금속팔찌 등은 아프리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림 14〉는 오세아니아에 있는 타이티 섬의 민속의상인 파레오를 응용한 작품이다. 이 타이티섬은 고갱(Paul Gauguin)이 원시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났던 곳으로³⁹⁾ 타이티 여성들은 빨간색 프린트의 폭이 넓은 1.5m 남짓의 면직을 등에서 가슴으로 돌려 위의 양쪽 끝을 목앞에서 한번 비틀어 목뒤로 돌려 묶는 식으로 착용한다.⁴⁰⁾



〈그림 13〉 아프리카풍(터빈, 구슬목걸이, 금속팔찌)
Kenzo, COLLECTION, 1992 s/s, p. 169.



〈그림 14〉 오세아니아의 타이티풍(파레오)
Kenzo, COLLECTION, 1992 s/s, p. 172.

〈표 1〉. 겐조의 작품에 나타난 형식미와 내용미

형식 \ 내용	에콜로지풍 (Ecology look)	민속풍 (Ethnic look)
패션의 주제	에콜로지풍, 전원풍, 농민풍	일본풍, 인도풍, 중국풍, 이집트풍, 멕시코풍, 러시아풍, 아프리카풍
형태	신체노출, 비구조적 형태	비구조적 형태, 혼합형
색채	파랑, 빨강, 자연색, 갈색, 대담한 색채	자연색, 원색(빨, 파, 주황), 민속조의 색채
소재	면, 견, 모, 편물	면, 견, 편물
장신구	모자, 깃털, 돌, 자갈	모자, 스카프, 목도리, 구슬목걸이
문양	꽃, 나비, 식물, 새, 바다, 표범, 사슴, 추상적 무늬	꽃, 민속적 무늬, 기하학적 무늬

V. 결 론

이상과 같이 1970-1990년대 <겐조>의 작품에 나타난 에콜로지풍과 민속풍의 형태에 따르는 그 미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에 있어서 에콜로지 풍(Ecology look)은 비구조적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고, 민속풍에 있어서는 인도풍, 일본풍, 이집트풍, 아프리카풍, 오세아니아풍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비구조적 형태였고 남미의 페루풍, 스페인풍에 있어서는 혼합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풍과 러시아풍은 구조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색채에서 에콜로지를 나타내는 작품으로 원색의 바다, 태양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색을 주조색으로 환상적인 선명한 색을 많이 사용하였고 브라운색의 중간톤등 자연색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지역의 민속적인 의복 표현에는 민속적인 색채 사용과 선명한 색의 강한 색채대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째, 소재로는 에콜로지풍과 민속풍에 있어 대부분이 천연섬유인 면, 마등이 주소재였으며 견, 모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자연으로의 회귀와 에콜로지를 느끼게 한다.

네째, 장신구와 문양에 있어서 에콜로지를 표현해 주는 장신구로는 밀짚모자, 커다란 꽃장식 벨트, 깃털목걸이, 조약돌을 이용한 목걸이와 팔찌,

조개, 소라, 고동등이었고 민속적 분위기를 표현해주는 장신구로는 모자, 스카프, 목도리를 이용하였다. 에콜로지 모티프로는 꽃, 나비, 식물, 동물등을 사용하여 자연적인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민속풍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민속적인 모티프, 꽃, 기하학적인 무늬 등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패션에 정서적인 자연성의 에콜로지풍과 민속풍의 재현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과거로 돌아가고픈 현대인들의 바램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패션에서 추구하려는 의지는 여러 각도에서 이해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박명희, "이세이 미야게(Issey Miyake)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 28, No. 1, 1990, p. 9.
- 2) M.E. Roach & J.B.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 Inc., 1965), pp. 64-72.
- 3) Marilyn J. Horn & Lou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p. 252.
- 4) M.E. Roach & J.B. Eicher, "Social Aspects of Dress",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ion of clothing & Textile, 1989.)

- 5) 丹沢, 「服飾の中心に女子 美的 感情」, (東京 : 源流社, 1990), p. 17.
- 6) M.E. Roach & J.B. Eio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op. cit., p. 6.
- 7) 미학 연구회, 「미학」, (서울 : 문명사, 1987), p. 187.
- 8) 김청, 「패션과 예술」, (서울 : 한국 패션산업 연구소, 1979), p. 13.
- 9) Marvin Marris, 「Dimensionous of Dress and Adornment」, (Kendall : Hunt Publishing Co., 1979), p. 25.
- 10) 이은상, (자연론), 「예술원 논문집」, 제5집 1966, p. 75.
- 11) 이은영 「패션 마케팅」, (서울 : 교문사, 1992), p. 47.
- 12) 남정심, “H. Wölfflin의 양식개념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학위논문, 1986, p. 3.
- 13) 김윤희,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p. 46.
- 14) Trend Sense Position, ecology, 패션 서울부 록 1991.
- 15) 송명진, 양숙희,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Exoticism)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 학회지, 제18호, p. 295.
- 16) 신기철, 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서울 : 삼성출판사, 1991), p. 2794.
- 17) C.R.Milbank, 「Couture : The Great Designers」, (N.Y : Stewart, Tibor & Chang, Inc., 1985), p. 404.
- 18) Ecolgy, 「멋」, 1990, 7. pp. 58-59.
- 19) 이주연, “라파엘로 전파에 표현된 복식에 관한 연구”, op. cit., pp. 92-93.
- 20) Trend sense position, Ethnic, 패션서울부 록, 1991.
- 21) 김민자, Traditional Identity and It's Aesthetic Value in Korean Fashion design”, International Symposium on Cultural Aspects of Home Economics in Asian Countries, 1990, p. 194.
- 22) 황춘섭, 「민속의상」, (서울 : 수학사, 1991), p. 10.
- 23) 이은영, 「복식 의장학」, (서울 : 교문사, 1991), p. 273.
- 24) 장순찬, “Art Nouveau Fashion”, 이대 석사 학위논문, 1984, p. 100.
- 25) Yves Saint Laurent, Yves Saint Laurent (N.Y : Clarkson N. Potter Inc., 1983), p. 37.
- 26) Ginette Sainderchin, 「KENZO」, (東京 : 扶桑社, 1990), p. 32.
- 27) 김 청, 「패션과 예술」, op. cit., p. 139.
- 28) Ginette Sainderchin, op. cit., pp. 34-36.
- 29) Ibid., pp. 29-36.
- 30) 하지수,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 대 석사학위논문, 1933, pp. 27-28.
- 31) 박병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대 박사학위논문, 1991, p. 44.
- 32)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 디자인”, 대한가정 학회지, Vol, 27, No. 2, 1989, p. 15.
- 33) B.B.Baines, Fashion Revivals from the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 day (N.Y : Drama Book Publishers, 1981), . 99.
- 34) 김민자, “2차 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 문화 스타일”, 「한국 의류 학회지」, Vol. 11, No. 2, 1987, p. 70.
- 35) Mulvagh-Jane,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N.Y. " Viking, 1988), p. 304.
- 36) Ibid., p. 332.
- 37) 양명순, “인도 민속의상에 관한 고찰” 건대 석사학위논문, 1985. p. 82.
- 38) 유태순, 「유럽의 민속의상」, (서울 : 경춘사, 1988), p. 15.
- 39) 이일, 「Paul Gauguin」, (서울 : 열화당, 1986), p. 106.
- 40) 라사라, 「민속의상」, (서울 : 라미라, 1991), p. 74.

ABSTRACT

A Stud on the Kenzo Takada's Works

Jung, Yun Ja

The desire of our contemporaries, who wish to recover humanities fading away and get back to the nature, is emerging as a main theme of the fashion today, the decade of facing 21st century.

The prevalence of naturalness—ecology, rural, peasant look—and ethnic look, shows the tendency mentioned above.

Kenzo Takada's works, which exhibit this naturalness and ethnic look, were picked and investigated.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beauty of form and internal and investigate in what form the naturaless and Ethnic look in Kenzo's work.

The result were as followings :

<1> Draped form are mainly used as form and they are made neglecting the body line

by straight-cut and provide the wearer ease and freedom of movements

<2> As for the color, fantastic original colors (red, blue, etc.) and natural colors are used. And Strong color contrast is seen. In ethnic look, original colors(red, blue, etc.), natural colors and ethnic colors are used.

<3> As for the fabric, Cotton, neat, skilk and wool, etc. are used mainly and use of such natural fibers represents the return to the natural well.

<4> As for ornament, natural things—straw hat, flower, feather, pebble, shell—are used and exhibit natural feelings strongly. For the ethnic look, ornaments representing each country's ethnic atmosphere by hat, scarf and neckcloth made of natural fibers.

<5> As for naturalness, Flower, deer, butterfly, leopard, and plant, etc. are used as motif. As for ethnic look, flower, geometric motif are used.